**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욥기 1장 6-12절>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설교는 전 장신대 구약학 교수 박동현 목사님이 지난 8월 18일 성온교회에서 했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일정 부분 빚지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힘들다 느끼면서도 도저히 안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믿고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바라고 그분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나 결핍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갈급한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위리의 필요를 따뜻이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중 다수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인가?

한 여행자가 그랜드캐년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벼랑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줘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거기 계시다면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어서 날 좀 구해주세요!”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갈 뿐 아니라 새벽기도회에도 나갑니다. 헌금은 몇 달러씩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

“아, 믿는대도 그러시네. 제가 얼마나 당신을 많이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는다구요!”

“좋다!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손을 떼거라.”

그러자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다시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보고온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마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서 사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구절을 표준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고,

또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욥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가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들으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믿는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예상과 달리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1:21).

그러나 사탄은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에게서 건강마저 빼앗아가면 분명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조건을 내거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욥은 몸의 고통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후에도 욥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며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결국 하나님은 욥의 괴로움이 끝나게 하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욥은 억울한 괴로움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의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게 아니라면,

대체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평안할 때나 고난의 때나 욥이 한결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얻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 그런즉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23:10,15).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함은, 우리가 그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말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신앙 생활하면 아프던 몸도 건강해지고, 쪼들리던 살림도 펴진다. 자녀들도 잘 된다. 온갖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무엇인가를 바라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 건강해진 사람, 잘 살게 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잘 살고 성공한 것 때문에 더욱더 큰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도 실패하는 사람, 심하게 오래 아픈 사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인 나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하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취어져 있는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실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엄청난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19-20).

한편, 이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크게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오르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이용하고 잘 관리해야 할 피조물이 경배의 대상으로 격상되고,

정작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이용 대상으로 격하되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전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축소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인간도 아닌 것을 경배하면, 우리의 인간성은 더욱 축소되고 왜곡됩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96:5-6)

17세기 영국의 시인 나훔 테이트는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요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며 살 때,

자신을 위한 참된 복과 유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세 스페인에서 박해 받아 가족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던 유대인이 폭풍을 만나 가까스로 작은 바위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벼락 맞아 죽고 단 하나뿐인 아이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 가버립니다.

홀로 남은 이 사람은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맨발 맨몸으로 아무도 없는 바위섬을 헤매며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배신하도록 주님은 온갖 재난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그런 식으로 저를 주님이 내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제게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앗아가시고 저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몰아가실 수 있겠지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제게 무슨 짓을 하시더라도 아무 쓸모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11:38).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일5:4).

믿음의 예배, 믿음의 감사,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인내, 믿음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만큼의 믿음은 아직 저희에게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고자 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성건일, 이주은 교우 가정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